

#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sup>1)</sup>

최 상 진 · 한 규 석<sup>2)</sup>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은 전통심리학과 상극의 관계로 잘못 인식되어져 문화심리학의 연구 가치가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탓에, 국내에서 연구자의 참여가 적다는 인식에서 필자들은 두 분야가 상생의 관계에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우선 문화심리학의 특성을 비교문화심리학과 토착심리학과 관계 속에서 논하였고, 문화심리학의 인식론적 특성을 전통심리학과 비교적으로 논하였으며, 이 분야의 연구갈래를 생성론적 관심, 구성론적 관심, 문화와 인지와의 관심으로 구분하여 각기의 특색을 정리하였다. 문화심리학이 지향하는 연구대상은 실험심리학의 탐구대상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문화구성론적 인식론에 실험심리학의 방법들을 접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개념의 진위(transformation) 과정을 논하고, 구체적으로 문화심리학적 실험법, 사회표상론을 이용한 분석, 일상언어에서 나타나는 담화(discourse)와 언술(narrative)의 분석, 사회적 활동의 분석을 문화심리학의 연구방법으로 논하였다. 문화간 비교를 위하여 비교문화적(cross-cultural) 방법보다는 질적 접근을 취하는 문화심리학적 비교연구법(comparative culture studies)을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학문에는 탐구의 대상이 있고, 이를 탐구하는 주된 방법이 있다. 불가의 용어인 지월(指月)의 비유를 빌리면, 탐구의 대상은 달에 해당되고, 방법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된다. 손가락은 달이라는 표적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도구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종종 수행의 도구가 수행 목적을 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들은 심리학의 발달과정을 이 지월의 비유가 잘 묘사하고 있다고 본다. 심리학이 지난 세기 동안 눈부신 발달을 하는데는 자연과학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실험법의 채용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대상을 탐구함에 있어서 자연과학의 방법론에 지배되어 탐구주제를 택하여 왔기 때문에 발전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널리 드리워졌다. 가장 그림자가 짙은 영역은 삶의

이해일 것이다. 삶은 사람이 환경 속에서 전개하여가는 생활의 모습이며, 이는 문화를 떠나서 이해될 수 없다 (Bruner, 1990). 실험심리학은 인간을 문화적 진공(vacuum) 상태에서 이해하려 들었고, 이 진공을 메우려는 노력이 최근에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심리학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관심은 세기말 심리학계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라고 본다. 이 관심사는 심리학이 지닌 복합학문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즉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논하면서 실험심리학의 발견에 의존하였고, 그러한 방법론이 허락하는 주제만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을 다루는 다른 학자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하지 못하는 위치에 처한 것이다. 문화심리학의 부상은 심리학이 지닌 학문

1)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장기초연구(1-521-001-3)지원으로 수행되었음.

2) 세분의 심사자들이 중요한 제안들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그들의 제안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힌다. 본 교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시기를 바람(choi@chungang.edu, ghan@chonnam.ac.kr)

적 특성을 확대함으로써 인간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원면에서이며,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다. 문화심리학은 손가락의 구속에서 탈피하여 달을 보자는 것이다.

이 같은 학자들의 인식에 더해서 세계화라는 시대적 추세가 문화에 대한 심리학자의 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소위 세계경제의 시대에 나타난 문화에의 관심은 이전 시대의 관심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 제국주의 시대에는 문화간 교류가 총칼을 앞세워 무력으로 성립된 주종의 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화교류는 일방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교류의 형태는 일방적 강요보다는 자기욕구에 기초한 상호선택과 상호수용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품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국문화는 물론 상대문화의 이해와 수용은 상호의존적 국제관계 속에서 자국과 자국민이 살아가고 번영하는데 필수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을 엮고, 심리학에서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그러나 문화심리학은 '그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방법론적 접근방식에서 과학적 정밀성의 부족과 보편적 이론의 추구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통심리학자들이 연구대상으로 삼기를 꺼려왔던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문화심리학이 전통심리학적 연구가 취하고 있는 요체적 요소들(예컨대, 조작주의(operationism), 원자주의(atomism), 실증주의(positivism))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문화심리학에서 제안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은 현재의 수준에서 볼 때 전통심리학자들의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는 미흡하다고 여기는 인식에 기인하기도 한다. 문화심리학의 방법론이 문화심리학에서 내세우는 패러다임적 전환(전통심리학의 패러다임에 반하는)을 뒷받침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지 못한 배경에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문화심리학'의 역사<sup>2)</sup>가 아직 일천하다는 점과도 무관하

- 1) 본고에서는 전통심리학을 자연과학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하거나, 이와 유사한 연구활동만을 수용할 만한 연구로 여기는 현대의 심리학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고 있다. 실험심리학을 그 요체라고 보겠다.
- 2) 문화심리학의 발단은 Wundt의 Völkerpsychologie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오늘날 '문화심리학'이란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하여 재구성되고 있는 것은 1970년대 이후의 현상이다.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김정운·한성열(1998)

지 않다.

문화심리학의 방법론적 발달이 지연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문화심리학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전통심리학의 기본 틀에 도전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틀을 개발하는 일에 지향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화심리학은 단순히 '문화를 심리연구에 반영한다'거나 '문화를 심리학 이론구성과 연구에 도입하거나 반영한다'는 차원을 넘어 전통적 심리학 일반에서 당연시해 왔던 심리학의 기본적인 전제와 인식론과는 상충되는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있다(Bruner, 1990). 따라서 문화심리학자들의 주관심과 주활동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문화심리학의 연구방법을 개발하는 것에 있기보다는 문화심리학의 본질과 인식론의 구성에 치중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들의 접근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거니와, 대안적 인식론에 바탕한 뚜렷한 방법이 부상하지 않은 실정으로서 관심을 지닌 실험심리학자들이 소극적인 자세 혹은 방관적으로 문화심리학의 연구를 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들은 본고에서 혼란스러운 이 분야의 연구 갈래를 논의 및 정리하면서,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심리학에서의 문화에 대한 세 갈래의 접근

심리학자들이 문화에 대하여 보인 관심은 현대심리학의 성립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실험심리학의 시조로 여겨지는 Wundt는 1900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인간의 이해를 위해 군집적 현상으로서 역사와 문화, 언어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의 이러한 관심사는 10권에 달하는 민족심리학(völkerpsychologie)의 발간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심리학의 발달에 Wundt의 저작이 미친 영향은 미미하고 오히려 그의 관심사는 인류학과 사회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Farr, 1983). 한편, 프로이드가 정신분석 이론을 정립하면서 보인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켜 인류학자들이 심리현상(주로 정신분석이론이 제시하는 오디피스 콤플렉스, 방어기제 등의 개념들)에 대한 문화간 비교 연구가 1930년대를 전후하여 한 때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심리학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학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문화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관심은 1970년대 이후의 것이며 여러 분야의 연구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아시아사회심리학회(1999년 대만)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각기의 초청논문발표에서 이들 연구의 갈래와 관계를 다룬바 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의 갈래로 정리될 수 있다(김정운·한성열, 1998; 최상진·한규석, 1998; 최수향, 1997 참조바람).

비교문화심리학(Cross-cultural psychology): 구미 제국에서 발달한 심리학의 훈련을 받은 학자들이 영국 연방의 구식민지역(홍콩, 인도 등에 나가 생활하면서 겪는 문화차이에 학문적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이론 틀을 렌즈로 삼아 현지인들의 행동특성이 지닌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 국제비교문화심리학회의 창립총회가 홍콩에서 개최되어 이러한 관심사를 지닌 학자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는 구미에서 유행하며 심리학을 전공한 제3세계의 학자들이 자국으로 귀국하여 그들이 구비하고 있는 이론 틀을 적용하여 자국민들을 연구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가 지닌 인식론적 특성은 실험심리학의 그것과 같다. 비교문화심리학은 구미의 실험심리학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학문의 목적을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심리학을 구현하는 것”에 두고 있다(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1992). 이 접근을 취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심리학 원리가 서구적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고(Berry, 1999), 이들을 여러 문화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구적 특성을 밝혀 내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보편성 있는 타당한 원리를 찾아내고자 한다<sup>3)</sup>. 이들에게 문화현상은 양파껍질에 비유될 수 있는

3) 문화심리학에 인류학적 색채를 강하게 입히고 있는 Shweder (1991)는 이를 중심치러기체계라고 이름짓고, 이의 발견은 문화를 벗어난 심리학이란 면에서 문화심리학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비판한다(Shweder, 1999). 필자들은 문화심리학에서는 보편성을 부정하지 않되 그 작용에서 획일성을 가정하지 않으며(universalism without uniformity; Shweder, 1999), 이 변화의 양태를 이해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Bruner(1990) 역시 비교문화심리학이 지닌 보편성의 발견(變異의 관찰을 통한) 목적 때문에 이 분야가

것이다. 즉 하나씩 벗겨가므로 그 속에 깊숙이 자리한 실제적 마음의 원리를 밝힐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인 목표를 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자들은 문화 비교를 함에 있어서 비교가능성에 주목한다. 즉 문화비교에서 측정의 동질성(equivalent measures)을 확보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문화간의 차이를 양적인 차이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측정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음(noise)의 제거를 매우 중시한다(van de Vijver & Leung, 1997).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문화를 비교하는 몇 가지의 차원을 제시하고 이들 차원에서 문화를 비교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양적인 비교를 한다. 이 분야에서 나온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개인주의 - 집단주의 이론(Triandis, 1989)으로, 최근에 들어 이론과 측정도구의 변형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주의 - 집단주의를 양극으로 하는 척도 상에서 개인주의가 강하면 집단주의가 약한 것으로 파악하므로 문화의 차이를 매우 단선적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4)</sup>.

토착심리학(Indigenous psychology): 비교문화심리학의 연구가 구미의 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제3세계의 학자들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면, 토착심리학은 조연에 머물던 제3세계의 학자들이 주역을 자처하며, 자신의 문화가 지닌 독특한 심리현상에 내부자의 입장에서 관심을 지니므로써 개척하고 있는 영역이다. 즉 심리학 원리의 서구문화적 특성을 의식하고 “마음의 탈식민지화”(decolonizing mind; Sinha, 1997)를 도모한다. 인도의 Sinha, 필리핀의 Enriquez, 중국의 양취슈(Yang), 일본의 다케오 도이, 한국의 최상진 등과 같은 학자들이 자국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심리적 특징에 착안하여, 이를 단순히 서구적 개념의 변형(variation)이나, 신기한 현상(exotic phenomena)으로 간주하는 대신에 이들을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구성하고, 개념들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들은 서구 심리학을 서구의 토착적 심리학으로 간주함으로써, 보편적 심리학을 환상으로 여기고 각 문화마다에 해당하는 심리학(psychologies; Kim & Berry, 1993)을

주류심리학자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지 못하는 주변부의 영역으로 전락하였음을 비판하고 있다.

4) 이 이론에 대한 논의는 한규석(1991, 1997)을 참고하기 바람.

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토착심리학자들은 자기 문화권에서 중요한 사회적 현상을 자신들의 용어로 포착하고 개념화시켜,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에서 정, 체면, 핑계, 눈치, 심정, 한(恨)을 심리학적 개념화하여, 이들로 한국인의 심리학을 구성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최상진, 2000).

토착심리학의 부상이 비교문화심리학 보다도 훨씬 뒤에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서구문화와는 다른 동양문화의 문화적 특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즉 서구에서 훈련 받은 동양의 학자들이 자신의 스승들의 학문적 틀을 깨기 어려웠을 것이며(Greenfield, 1999), 서구의 접근에서 탈피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모독(Enriquez, 1993)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수 있다. 토착심리학은 보편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면,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취한다는 면에서, 후술할 문화심리학적 특징과 구별되지 않으나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는 내부자적 관점(emic approach)에 치중하는 문화심리학의 한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문화심리학(Cultural psychology):** 문화심리학이라는 용어는 사회심리학편람 2판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Greenfield, 1999). 이 편람에 인류학자인 DeVos와 Hippler가 기고한 장(章)의 제호가 “문화심리학: 인간행동의 비교연구”이었다. 최근에 개정된 이 편람(4판)에는 심리학자(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들이 주를 이루어 문화심리학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기고 글에서 문화심리학에 반영되고 있는 두 가지 다른 지적 전통을 볼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비교초기의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접근을 계승하여 인간의 지적 능력과 심리의 발달에 문화(언어, 활동 등)가 지닌 매개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Cole(1990), Ratner(1997) 등의 연구자들이 심리현상의 보편성 전체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 들어간 심리학을 구성하려는 노력이다. 인류학에서는 외형적 문화 현상보다 인간의 사고, 인식의 문화차이를 다루려는 인류학자들(Shweder & Bourne, 1982)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두 전통은 공통적으로 문화와 인간을 분리하여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문화 속에 인간이 있고, 문화는 인간 속에 자리하고 있는 불상잡 불상리(不相關)의 관계로 본다. 아울러 문화의 차이를 양적인

차이로서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로 여긴다. 이러한 면에서 문화심리학은 토착심리학과 공통된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토착심리학과 차이점으로서 문화심리학은 내부자의 관점과 외부자의 관점을 모두 취한다는 것이다. 즉 토착심리학이 내부자의 입장에서 심리학을 구성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에 비해서, 문화심리학은 이들 내부자의 관점을 제3자의 관점에서 재조망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현상의 문화적 특수성과 상대적 공통성(commonalities)의 발견에도 관심을 지니고 있다.

문화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관심의 다양성을 세 갈래로 정리하여 보았다. 세 갈래 중에서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은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비교문화심리학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전개는 세 가지 분야가 서로 대립하는 상극의 국면이라기 보다는 서로에게서 도움을 얻는 상보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심리학을 비교문화심리학과는 구별시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각 분야간의 특징의 차이가 이론적으로는 크고, 실제에 있어서는 작아지고 있지만, 문화심리학의 특징과 그 방법론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이 같은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 논의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문화심리학에서 보는 심리적 현상의 성격

문화심리학의 일차적 목표는 인간의 심리현상을 보다 충실하게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하는데 있다. 인간의 심리현상은 환경과의 부단한 관계맺음과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고 변화된다. 인간이 관계 맺고 상호작용 하는 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사회-역사-문화적 환경으로 구성된다. 이들 환경적 요인들은 개별적 및 복합적인 역동의 형태로 인간의 심리경험의 성격을 매개하거나, 또는 직접적 과정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심리현상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점에서 인간의 심리현상은 생물학적이며, 물리환경적이며, 사회-역사-문화적인 형태로 구성되고 주도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심리학은 이러한 다양한 매개 및 영향요인 중에서 사회-역사-문화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심리 및 심리현상(심리가 반영된 문화현상)을 이해하고 설명

하는데 주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문화심리학에서 다루려는 것은 문화적 경험을 통해 구성되고 축적되며, 이를 반영하는 심리 및 심리현상이다.

**문화와 심리의 관계:** 문화심리학의 대상인 문화적 심리 및 심리현상은 인간 내부의 생리와 인간 외부의 문화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동질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영향을 미치는 변증법적 동화(dialectical assimilation)를 지향한다. 그러나 이들 요소들은 자기 스스로의 구성논리와 운행논리를 지니고 있어서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적 심리 및 심리현상은 생물학적 현상과는 물론 문화 자체와도 구분되는 독자적인 존재 및 기능영역을 지닌다. 문화와 심리가 변증법적 동화를 지향한다고 함은 심리 및 심리현상이 그 발생기원을 문화에 두고 있으며, 동시에 문화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문화의 요구와 이상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즉 “문화적 격자 틀(cultural templates)은 인간의 정신 및 내면 심리의 심층부위에 까지 스며들어 있으며, 인간의 정서생활과 신체-정신적 반응의 성격과 형태를 일정한 방향으로 주도한다”(Wikan, 1990, p.17). 문화와 심리가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영향의 과정은 문화나 심리 중 어느 한쪽이 작동할 때 이에 따라 반응하는 후속 환류(feedback)의 과정뿐 아니라, 어느 한쪽의 변화가 다른 한쪽의 변화를 유도하는(단순한 반응이 아닌) 전향적 유도 환류(feedforward)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화와 심리가 독자성을 갖는다 함은 생리나 문화가 곧 심리가 아님을 뜻한다. 예컨대, 문화와 관련하여 구성되는 인간심리의 문화적 특성은 사회적 조건이나 이데올로기 또는 문화적 규범을 그대로 복사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심리가 이들 문화-사회적 현상과 절연된 관계로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인간심리의 문화적 특성은 인간의 문화-사회적 활동 속에서 복잡한 심리과정을 통해 자기 내에서 재구성되는 이차적 성질의 문화경험이며 문화의 이해이다. 따라서 문화심리학에서 인간심리의 문화적 특성을 연구하거

나 파악하는 방식은 문화를 직접 연구하기보다는 사람이 문화를 심리적으로 경험하고 구성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Thomas와 Znaniecki가 제안하는 문화심리의 접근방식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들의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학은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의 외면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의 실제적 삶의 경험과 내면적인 태도를 밝혀야하며, 이는 이러한 삶경험이 사회-문화-제도 속에서 일어나는 실재적이며 살아있는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Thomas & Znaniecki, 1958, p.1834).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심리학은 개인 또는 집단의 실제적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적 경험과 삶, 실천적 활동 속에서 구성되는 인간 심리의 문화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심리학에서 관심을 갖는 심리의 영역은 의미, 동기, 의도성, 인간관, 자연관, 세계관을 포함하는 마음의 영역이다. 또한 문화심리학에서는 문화가 갖는 특성인 공구구성성, 공유성, 간주관성을 바탕으로 소이연(所以然)하고 소당연(所當然)하게 구성되는 심리화된 문화적 성분을 떠나어 체계화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결국 문화심리학의 궁극적 지향은 문화와 심리를 별개로 구분하여 이 둘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에 관한 관심을 넘어서, 심리 속에 용해된 문화와 문화를 매개로 이어지는 심리적 삶 자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다(Jahoda, 1992).

두 가지 탐구 대상: 심리와 문화심리의 구분은 실제적 이라기 보다는 언술적인 구분만이 가능하다. 물을 먹기 위하여 물그릇이 필요하듯이 물그릇은 물이라는 내용(문화)을 담는 기능을 가지므로써 존재가치가 인정을 받는 것이다. 담을 것이 없다면 그릇자체가 필요없는 것이다. 심리학의 주된 임무는 내용물과 분리된 그릇의 작용원리를 구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왔다. 이에 대하여 Bruner(1990)는 인지심리학의 발달을 반추하면서 인지의 역혁명(retro-revolution)을 주장한다<sup>5)</sup>. 그의 이

5) 인지심리학의 개척자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J. Bruner는 1950년대에 행동주의 심리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의미의 연구를 제안하였다. 자극-반응, 외현적 행동, 본능 등 당시의 연구주제 대신에 의미를 내세우자는 것이며, 당

같은 주장은 심리학을 심리현상의 온전한 탐구학문으로 균형을 잡자는 주장으로서, 그는 인간사고의 두 가지 양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Bruner, 1986). 하나는 명제적 사고(paradigmatic mode of thinking)이다. 명제적 사고는 이론적이고, 형식 논리적이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진술로 구성된 과학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사고의 진위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상황맥락(누가 언제 생각하느냐 따위)에 의해서 논리가 좌우되지 않는다. 이 사고의 용어는 일관성과 비모순성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아이들은 이 사고에 바탕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반면에 담화적 사고(narrative mode of thinking)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어, 사람들간의 관계맥락, 교류상태, 행위의 의도 등 구체적이고 상황 특수적인 사고이다. 담화적 사고는 사람과, 그들의 행위, 행위의도, 목적,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상황맥락마다 달리 나타난다. 담화란 사람들의 의도와 그 변화가 개입된 이야기이다. 담화가 이해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일 필요가 있지만, 논리의 모순이 흥미 있는 이야기를 구성하기도 한다.

물과 물그릇의 비유에서 명제적 사고는 물그릇에 해당하며, 담화적 사고는 담기는 물에 해당하는데,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어느 하나 없어도 사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생각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논리를

빌려야 하며, 논리는 생각의 내용이 없는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명제적 사고의 위력은 과학에서 볼 수 있고, 담화적 사고의 위력은 문학 작품에서 볼 수 있다(Bruner, 1986). 심리학의 탐구에 의해서 기억의 원리, 언어의 구조 등 인지현상의 작용 과정에 대한 많은 지식이 누적되었으나, 사람들의 삶의 내용, 의미, 의미의 소통 등에 대하여는 정리된 바가 별로 없다. 문화심리학의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이 있지만(후술함) 실험심리학과 가장 큰 차이는 이해의 대상이 다른 점이다. 이 같은 차이는 인식론에 있어서 차이를 배태한다<sup>1)</sup>.

#### 문화심리학의 세부 갈래

현실에서 문화심리학은 문화심리학적 취지에 대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 학자들이 다양한 관심사와 시각을 갖고 연구하는 학파들을 통칭하는 우산적 개념이다. 문화심리학은 거의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이들 여러 갈래를 포괄하는 이름만의(loosely connected) 큰 우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들은 이들을 크게 세 가지의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에 대한 상세한 비교논의는 다른 하나의 독립된 논문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는 이들의 갈래를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시의 행동주의에 정신과정(mentalism)을 접합시킨다는 의도(Tolman이 시도함)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연구하고, 의미화 작업을 연구하는 것이었다<sup>2)</sup>. 심리학을 인접인간과학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주장된 즉 행동주의를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시키려 했다. 이 제안은 인지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인지혁명엔 컴퓨터의 개발과 맞물려 오늘날의 정보처리심리학으로 발전하였으나, 원래의 의도했던 의미의 심리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보처리관점에서 본다면 의미는 정보일 뿐. 정보는 복잡할수록 문제가 있고, 간단할수록 좋다. 비트와 이들의 조합체계(문법)를 다루면서, 이전의 자극-반응이 input-output으로 바뀌고 마음이란 정보처리의 프로그램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취급되게 되었다. 더욱이 튜링의 기계로 복잡한 계산도 간단한 규칙으로 해 낼 수 있게 되면서 컴퓨터의 메타포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환원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의도, 의미는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깊은 논의는 김영정(1996, 4장), Bruner(1990)을 참고하기 바람.

1) It focused upon the symbolic activities that human beings employed in constructing and in making sense not only of the world, but of themselves(Bruner, 1990, p. ).

6) 초고를 본 한 심사위원은 다음을 지적하였다. “문화심리학의 지향점 하나는 인지의 내용과 과정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둘의 분리가 불가능함을 보이는 것이다”는 Shweder의 견해를 수용할 때, 전통심리학에서 주장하듯이 동일한 인지과정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지만 다른 인지내용을 산출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며, 이것이 잘못임을 보이지 못하는 한 문화심리학이 전통심리학자들에게 심각하게 수용될 수 없다. 미시건대학의 Nisbett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심리학 연구팀(본문에 후술됨)들은 바로 문화가 다르면 내용뿐만 아니라 인지과정도 다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화심리학이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며, 과정을 전통심리학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문화심리학을 제한시키는 것이다. 필자들의 주장은 Shweder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다만 본고의 이 부분에서 사고의 과정과 내용을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은 전통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이 대상으로 삼는 주체의 치우침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미시건대학의 문화심리팀은 사고의 내용보다는 과정에서의 문화차이를 밝히려려고 하는 점에서 전통심리학의 인지과정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실험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심리학이 포용하는 대안적 인식론과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문화생성론적 관심:** 외부의 문화가 인간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인간 심리 내부에 내재화된 심리적 구성요소로 전화되는 과정은 크게 생성적 과정과 구성적 과정의 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성적 과정은 1920년대 구소련의 Vygotsky(1978)의 연구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의 접근을 이어받은 Leontiev(1981), Ratner(1997), Cole(1990), Wertsch(1985) 등에 의해 제안되고 발전된 러시아 역사-문화학파의 관심사이다. Vygotsky는 막시즘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를 심리학 연구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의 활동초기에는 서구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Wertsch, 1985). 이들 학파는 인간의 정신과정의 근원을 뇌에 두지 않고 사회에 두고 있다. 인간의 심리적 본성이 내재화된 사회관계의 합체이며, 이 합체가 개인에게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심리학의 우선과제는 어떻게 개인들의 반응이 집합적인 생활 형태로부터 부상하는가를 보이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의 활동(activity)이 외부세계와 인간의 마음을 중개하는 연결고리라고 보기 때문에 활동을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로 삼고 있으며, 역사-사회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삶의 활동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실경험적 심리형성의 과정을 밝히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점에서 생성적 과정은 문화심리의 원초적 발생과정에 강조점을 둔다.

**문화구성론적 관심:** 문화심리의 생성론적 측면에 대한 관심보다, 구성적 측면에 관심을 지닌 학자들은 집단적 사회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담론과 상호작용을 통해 기구성된 문화가 의미 체계, 신념 체계, 해석 체계, 가치 체계 등의 형태로 인간의 심리 속에 내재화되고 변모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를 지닌 행위이며, 이 행위에 대한 소통과 해석이 된다. Harre(1999)와 같은 이들은 인간의 마음이 지닌 실체성을 부정하고, 마음을 사적인 대화, 사적인 기호체계의 사용이자, 또한 공적인 대화(둘 사이에 교류되는)라고 본다. 즉 내부의 것을 외부의 공적인 과정으로 만들고 독백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대화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마음이라는 담화심리학(discursive psychology)의 연구풍토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

은 언술(narrative) 혹은 담론(discourse)의 구성과 소통을 심리학의 탐구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인과론(causative)적인 인식론에 대한 대안으로 영위적(營爲的, agentic) 인식론(Harre, 1999)에 바탕하여,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고, 규범과 준거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자극에 대한 해석, 의미, 삶의 목표, 계획성을 중시함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더불어 집단적 과정을 통해 문화가 심리의 구성요인으로 내재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심리의 사회구성적 과정에 강조점을 둔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인식론적으로 문화심리학과 공통이지만, 그 분석의 대상을 흔히 이야기하는 국가, 민족의 단위로서의 문화에 맞추어 문화비교에 관심을 두고 있기보다는 각 문화권내에서 심리학적 탐구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급진적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Gergen(1985, 1997)을 비롯하여, Harre(Harre & Gillet, 1994), Potter(1996), Billig(1988), Edwards(Edwards & Potter, 1992) 등이 이러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

**문화와 인지:** 생성적 관심과 구성적 관심<sup>7)</sup>을 지닌 학자들이 벌이는 문화심리학의 활동은 실험심리학계의 연구와는 거의 무관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험심리학계에서 활발히 문화심리학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뿌리는 Triandis가 주도한 비교문화심리학에 연원하고 있다. 앞에서 약속하였지만, 이 분야는 인간의 심리가 보편적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인식론을 전제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다루는 문화에의 관심은 문화간 차이에 있다. 즉 문화를 독립변수로 취하고, 관심있는 종속변수로서 심리현상에서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러나 서구와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된 전통심리학의 개념이나 이론이 타문화권에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면서, 문화차이에 대한 발견들을 구성론적 인식론을 취하여 정리한 논문(Markus & Kitayama, 1991)이 주요 학술지에 발표되면서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들은 서구심리학의 핵심개념 중 하나인 '자기(self)'가 필자들은 이전의 글에서(1998), 문화심리학의 영역을 활동 중심적 문화심리학과 인지중심적 문화심리학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본고에서 생성적 문화심리학은 전자에, 구성적 문화심리학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양인에게는 다른 형태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와 관련된 정서, 동기, 인지의 영역에서 문화차이를 밝히는 연구의 장을 열어 놓았다.

이 분야의 연구의 중핵적 역할을 하는 미시건 대학의 Nisbett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와 인지> 연구팀은 실험심리학의 틀 안에서 문화를 다루면서 문화를 모호한 타부개념에서 심리학적 개념으로 전환시켜 실증적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가 기존의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들과 지니는 차이는 인식론적으로 보아서는 큰 차이가 없다. 변수의 양적인 측정을 중시한다는 점,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취하고 있다는 점, 문화를 핵심적 독립변수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비교문화심리학과 같은 입장이며, 문화구성론적 입장에서 문화의 차이를 질적인 차이로 인정하는 면<sup>8)</sup>에서는 보다 문화심리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가 주목을 받는 있는데(Goode, 2000), 그 이유는 기존의 심리학이 취하고 있던 '인지과정은 문화보편적'이라는 가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인(혹은 일본인, 중국인)과 미국인들에게 잘 통제된 실험과제를 제시하여 사고과정을 분석하면, 동아시아인들은 총체적(holistic) 사고를, 미국인들은 분석적(analytic) 사고를 하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로 모순되는 두 가지 사건들을 접해서, 동아시아인들은 두 가지 사건을 타협적으로 모두 받아들이는 반면에 미국인들은 둘 중의 하나를 받아들이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연구는 누구나 모순을 접했을 때 이를 해결하려한다는 것은 보편적이지만 해결의 인지과정 자체가 문화마다 다른 문화적 산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전통심리학의 중요한 가정(assumption)을 흔들고 있다(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Peng & Nisbett, 1999). 이들 연구가 보이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이들이 문화를 단선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복합적인 구성체로 파악하려고 보이는 노력일 것이다. 즉 비교문화심리학에서 문화간 비교는 종속변수에서의 차이에 관심을 두고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이들은 변수들간의 관계의 구성이 문화를 형성한다는 시각<sup>9)</sup>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

8) 비교문화심리학의 문화상대주의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대하여 김정운·한성열(1998)은 좋은 논의를 제공하고 있음

9) 비유를 들어 이를 설명하면, 두 외계인종의 신체를 비교할

는 것이다. 전기한 논문에서 이들은 정서, 인지, 동기의 상이한 개념들에서 나타나는 문화차이의 분석을 통해, 서구인의 자기는 '독립적 자기'로 동양인의 자기는 '상호의존적 자기'로 특징지워 제시함으로써 두 가지 유형의 자기에 바탕한 문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은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자기가 문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전통심리학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문화를 정당한 관심사로 부각시키는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접근에서도 문화차이를 강조하면서, 주효과(문화 A와 B는 다르다)를 보이는 것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나, 최근에 주효과가 아니라 상호작용효과의 측면에서 문화차이를 조망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한 연구(Chiu, Morris, Hong, & Menon, 2000)는 문화적 특성을 지닌 인지과정과 내용은 그 상황을 촉발(priming)하거나, 조건이 제공된 상황에서만 나타난다고 보는 역동적 구성론(dynamic constructionism)의 입장<sup>10)</sup>에서, 문화적 특성이 작용하는 상황을 촉발하는 실험적 절차를 두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문화의 영향이 주효과로써 작용한다는 환상을 깨고, 어떠한 상황에서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이므로써, 문화의 작용과정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계열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Peng & Nisbett, 1999)는 명제적 사고가 서양인에게서 발달했고, 담화적 사고는 동양인에게서 발달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즉 두 가지 입장이 갈등을 이루는 상황에서, 변증법적 통합이 서양인에게서는 두 입장의 논리성에 의해서 하나의 입장이 지배적인 통합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동양인

때, 감은 머리가 올보다 크고, 입이 작으며, 손은 더 길다고 하자. 이러한 비교는 감과 올의 비교라고 할 수 있지만 매우 국부적인 비교이다. 그러한 세부 특징에 있어서의 비교를 무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외계인종의 각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전체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지가 비교되지 않는 한 매우 불만족스러운 비교라 하겠다. 문화란 요소들의 차이이기 보다는 요소들의 구성형태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다. 비교문화심리학의 연구들이 전자의 비교에 해당하고, 문화심리학의 연구들은 후자의 비교적 접근을 취한다.

10) "...individual social perceptions are not rigidly determined by their cultural theory. Instead, individuals are socialized into a cultural theory with major premises that mirror the surrounding ideology and social system, yet this cultural theory only guides social thinking when it is activated." (Chiu et al., 2000, p.256)



에게서는 두 입장을 부분적으로 모두 취하는 통합이 나타남을 보였다. 이러한 특색은 법정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동서양의 문화차이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인지의 복합적 특색을 문화와 결부시켜 분석하였고 이를 문화상대적인 입장에서 정리하였다는 점과 문화속에서 인지의 특색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심리학에 보다 접근한 연구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와 인지> 분야의 연구가 변수 간의 관계적 속성의 결집체(constellation of referents)로서 문화를 논하는 대신에, 특정 변수에 있어서의 문화 차이를 양화시키는 작업을 벌이는 한에 있어서, 자칫 문화상대주의를 표방한 문화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낫다")를 담지하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sup>11)</sup>.

<문화와 인지> 계열의 연구자들은 문화의 차이를 단순히 우열의 차이로 제기하기보다는 문화간의 질적인 차이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동양인들은 사건들의 공변성

과약에 능숙하고, 총체적, 맥락적, 변증법적 사고에 능한 반면에, 서양인들은 분석적이며, 요소적이며, 모순과 약적인 사고에 능하다(최인철, 2000; Peng & Nisbett, 1999). 따라서 상호우열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이냐에 따라 우수한 문화는 달라진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우열을 가리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모순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학적 사고에는 서양이, 복잡한 사회문제에서 균형과 타협안을 끌어내는 데는 동양의 사고가 우월하다<sup>12)</sup>는 답은 매우 합리적인 답이기는 하나, 우리가 보고 있는 과학의 발전과 경제활동의 위업이 서구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현실인식 앞에서 여전히 비교우위적 추는 서구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본다(각주 11 참조).

### 문화심리학 연구방법

비교문화심리학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문화심리학은 별도의 방법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흔히 전통심리학자들이 문화심리학 연구의 방법론이 조잡하다거나, 설득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비판은 문화심리학의 탐구대상이 비교문화심리학 및 일반심리학의 그것과 지닌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 본다. 연구방법은 알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떤 특정한 연구방법이 타당하

11) <문화와 인지> 연구팀들이 문화제국주의, 혹은 자문화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은 문화상대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서구인의 자문화중심성을 비아냥거리기까지도 한다(각주 12참조). 그러나, 몇 가지 면에서 문화제국주의의 현상을 우려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의 심리학 자체가 문화적 산물이며, 강한 서구문화적 특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심리학의 개념과 이론이 개인을 강조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나타나고 있다. 심리학의 용어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어떻게 보겠다는 주관적(문화적) 정치성을 지닌 용어들(human kinds; Danziger, 1997)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서구의 심리학 이론과 개념이라는 연구틀을 갖고 연구하는 것은 문화제국주의를 전파하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소화하는 사람들에게서 자문화중심성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Goode, 2000, 8월 8일)에 <문화와 인지>팀의 연구결과가 기사화되어 소개되었다.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현대의 세계경제를 끌어가고 있는 서구인의 사고가 우월하다" 식의, 8월 15일, New York Times)에서 이 같은 문화제국주의적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연구자들이 선택하여 쓰는 용어에서도 자문화중심성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Peng & Nisbett(1999)은 동서양의 변증법적 해결과정의 특색을 정리하면서, 동아시아인의 그것을 naive dialecticism이라 이름짓고 있다. "By emphasizing change, contradiction, and covariation, naive dialecticism restricts any reductive, analytic, and logical quest for understanding nature and the world."(본문 마지막 쪽)라는 그들의 문장에서 naive란 표현이 지닌 정서를 짐작할 수 있다.

12) 사고양상의 문화차이를 비교한 논문(Peng & Nisbett, 1999)의 말미에서 Nisbett 등은 사고의 우위성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One of the inevitable questions stemming from this research is, which approach to dealing with contradiction is better, the (flawed) Chinese way or the (flawed) American way? the dialectical response ... is "it depends." The logical ways of dealing with contradiction may be optimal for scientific exploration and the search for facts because of their aggressive, linear, and argumentative style. On the other hand, dialectical reasoning may be preferable for negotiating intelligently in complex social interactions. Therefore, ideal thought tendencies might be a combination of both; the synthesis, in effect, of Eastern and Western ways of thinking. 이들의 이 같은 주장을 또 다른 논문(Choi, Nisbett, Norenzayan, 1999)에서 동서양의 귀인양상을 비교하며 "적어도 귀인 영역에서는 동아시아인들의 심리관(folk psychology)이 미국인의 그것보다 더 과학적이라 할 수 있다"는 표현과 더불어 보았을 때, 이들 연구자들이 문화공평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다.

나 또는 적합하나의 문제는 그 방법이 연구하려는 대상의 본질에 적합하게 접근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이정모, 1997). 문화심리학은 우선 연구의 대상 면에서 전통심리학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방법론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함축하며, 동시에 전통심리학의 방법론적 인식론을 문화심리학의 방법론 평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필자들은 여기서 문화심리학의 방법론이 더 우세하다거나 또는 전통심리학의 방법론이 더 발달된 방법론이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두 방법론을 비교-평가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일을 시도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개발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심리학의 방법론을 소개와 제언의 형태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법론의 제시에 앞서 문화심리학의 존재론 및 인식론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가의 문제는 연구대상의 본질에 대해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식론적 특성:** 마음 또는 심리가 행동으로 구현되며, 동시에 심리학은 감각기관을 통한 직접관찰이 가능한 행동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통심리학의 입장에서는 '외현적 행동'을 관찰(특히 실험관찰)을 통해 변수로 취하고 계량화하고 변수들간의 인과적인 이론을 구축하는데 주관심을 둔다. 따라서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기본적 인식론인 객관주의, 보편주의, 인과주의, 원자주의, 조작주의 등에 얼마나 충실한지의 정도를 따져 연구방법의 정밀성 정도를 판단한다. 그러나 행동보다는 개인의 주체적 경험과 주체적 경험의 문화적 구성성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문화심리학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역사-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주관심을 둔다. 따라서 문화심리학의 연구대상은 인지과정이기 보다는 마음과 생각의 내용이 되며, 여기서 행동은 주체적 경험에 관여되는 마음과 생각을 추론하거나 확인하는 외현적 단서의 하나로 취급된다. 따라서 문화심리학의 방법론은 현상학적, 해석학적, 문화인류학적, 기호학적 접근의 특징인 주관주의, 문화-사회-역사적 구성주의, 현상적 경험주의, 해석주의의 인식론을 중요한 방법론적 틀로 도입하고 있다(Alasuutari, 1995).

이러한 방법론적 이해에 따라서 문화심리학에서는 계량적 연구방법보다는 질적인 연구방법을 우선시 한다(김정운·한성열, 1998; Ratner, 1997). 질적인 연구방법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이론의 구성과 생성에 있다. 이론화 작업은 현상에 관련된 단편적인 증거들을 엮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제한적으로<sup>13)</sup> 설명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념들과 개념들간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료로부터 이론이 구성되고 이 이론은 새로운 자료들에 의해서 타당성이 검증되는 순환적 과정이 여는 심리학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문화심리학적 질적 연구가 지닌 특성은 이론이 현실적 자료(양적 및 질적 자료)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지고, 관련된 현상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의 검토에 의해서 타당성이 검증된다. 이러한 면에서 최근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근거이론(Strauss & Corbin, 1998)적 접근이 잘 활용될 수 있다.

문화심리학은 연구의 대상으로서 심리현상을 개념화함에 있어서 연구자가 개념의 특성을 조작적으로 정의·구성하기보다는, 그 현상에 대한 일반인의 표상과 이러한 현상 및 표상과 관련된 일반인의 경험양식을 일반인심리학(folk psychology)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현상을 개념적으로 구성한다(Bruner, 1990). 따라서 문화심리학에서는 전통심리학에서처럼 변인간의 인과관계나 관계성 자체를 밝히는 일보다는, 먼저 연구의 대상 자체에 대한 성격 규명과 이를 기초로 한 현상의 개념화가 일차적인 과제가 되고 이 작업에 많은 노력을 투여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인의 표상내용과 경험속성들을 일반인이 생각하고 느끼며 생각하는 바대로 일반인의 언어로 표출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가 아닌 개방형 질문지(open-ended questionnaire)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는 일반인의 반응을 계량화하는 일보다는 그러한 반응

13) 제한적이란 의미는 이론을 이데올로기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즉 페미니즘, 구성주의, 구조주의, 상호작용론 같은 개념들은 이론이라기 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철학이다. 필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론이란 현상에 대한 설명개념과 이들 개념들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 가능한 틀로써 그 적용영역이 무차별적이지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

이 무엇을 뜻하며, 그러한 반응의 배경에 깔려있거나 숨어있는 심리적인 경험과 관여된 마음 및 생각을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연구과정과 활동은 전통심리학적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한 시각에서 볼 때, 주관적이며 정밀성이 낮은 영성한 방법으로 잘 못 오인될 수도 있다.

한편, 문화심리학의 시각에서 전통심리학의 방법론을 본다면, 이 역시 타당하지 못한 방법론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전통심리학은 인간의 심리가 보편적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인식론을 전제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서구와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된 전통심리학의 개념이나 이론이 지닌 서구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Danziger, 1997)은 이 개념을 타문화의 현상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현상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깨우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이를 경험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덕성발달에 대한 문화비교 연구를 들 수 있다. Kohlberg(1984)의 도덕성발달 이론을 적용시켜 문화간 비교를 하는 경우에 비서구 문화권에 비해 서구 문화권에서, 또한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게서 훨씬 높은 비율로 최상의 도덕발달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덕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탈맥락화시키는 사고를 전개하여 온 서구의 문화적 특성을 보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Gilligan, 1984). 즉 서구에서의 도덕원리는 구체적인 실물성 타인(concrete other)의 관점에서 벗어나 일반화된 타인(generalized other)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문화특수적인 현상이다(Benhahib, 1992). 즉, 중세의 철학자들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르조아 개인들이 당위적으로 해야 할 것은 이성(理性)을 따르는 것이고, 당연히 보편적 이성의 작용으로서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그들은 관습적 도덕에서 관습초월의 도덕성으로 진행할 것을 남성들에게 요구하지만(즉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한 원리추구), 서구에서도 여자들의 경우에는 가정의 도덕(재생산과 안락한 집을 꾸미는데 필요한)에 머물기를 요구했으며, 초월적 이성을 인정하지 않은 다른 사회에서는 서구식의 도덕원리가 추구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문화적 분석을 통해서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 전체가 지닌 문화적 한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타문화에 이

론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연구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sup>14)</sup>. 또 하나의 구체적 예로서, 서구심리학의 핵심개념인 '자기(self)'의 문화적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자기개념의 현상학적 질적 차이를 간과하고 다양한 속성에 있어서 양화된 비교를 하였다(예, Cousins, 1989; Rhee, Uleman, Lee, & Roman, 1995 등). 이러한 연구들의 누적된 결과가 서양-독립적 자기, 동양-상호의존적 자기의 형태로 개념화되었다(Markus & Kitayama, 1991). 일견 공평한 대응개념으로 구성된 이 이론도 기실은 자기라는 현상의 문화보편적 출현을 전제하고, 서구의 독립적 자기에 대한 대응개념으로서 상호의존적 자기를 상정한 것이다. 즉 독립적 자기가 매우 구체적인 실물성 현상이지만, 상호의존적 자기는 독립적 자기와의 대응관계에서만 파악되어지는 비구체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자기 개념의 문화심리학적 검토를 한 연구(최상진·김기범, 1999)는 서구-실물성 자기(entity self), 한국-현상적 자기(phenomenal self)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문화심리학적 분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전통심리학이 고래로부터 내세우고 있는 방법론적 과학주의를 부정하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Popper(1972)는 전통심리학을 포함한 전통사회과학에서 내세우는 실증주의적 기본전제(basic tenets)가 사실에 있어서는 실제의 과학적 사고와 과학자의 활동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Popper는 과학자들이 실증의 근거로 내세우는 기본전제들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과학적 방법'을 모방해서 만든 허구적 '과학주의(scientism)'라는 말로 실증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심리학자인 Lewin(1935)도 "Aristotelian thinking"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간접적으로 실증주의적 지각표상(percepts)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심리학에서 사이비과학적인 사고가 작용하여 현상의 구체적인 본질을 포함하지 못하는 피상적이며 정태적인 개념범주를 사용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인간 심리의 본질적인 속성과 그 역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사

14) The contextuality, narrativity and specificity of women's moral judgement is not a sign of weakness or deficiency, but a manifestation of a vision of moral maturity that views the self as a being immersed in a network of relationships with others(Benhahib, 1992, p.154).

고에 인접한 “Galilean thinking”으로 전환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과학으로서의 전통심리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문화심리학의 패러다임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인 ‘인간과학적 패러다임<sup>15)</sup>’을 따르고 있다(최상진·한규석, 1998).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전통심리학의 연구방법론을 조망해보면, 전통심리학의 연구방법론은 사람의 심리연구의 한 부분, 즉 심리의 요소적 현상에 대한 특성, 변수들의 인과적 영향관계를 구명하고자 하는 관심에서, 인과적, 결정론적, 원자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문화심리학적 접근방법은 심리현상의 다른 부분, 즉 의도적, 목적론적, 사회문화적으로 작용하는 심리현상의 내용, 이의 생성, 소통의 과정에 관심을 갖고, 해석학적, 현상학적, 담론분석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비록 현재의 수준에서는 문화심리학의 내용이 고급수준의 자료를 생산해 내는데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연구방법과 관련해서 문화심리학에서는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등에서 사용되어지던 기존의 방법을 전용해 왔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문화심리학은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방법들을 개발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전용 현상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시각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발달된 타학문 분야에서 발전되어 온 방법을 문화심리학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문화심리학에서 주창하는 것처럼, 문화심리학의 연구방법은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주도되어야 한다거나(Greenfield, 1999), 문화심리학은 전통심리학과는 달리 질적이며, 해석학적인 접근이나 현상학적 접근을

해야한다(Ratner, 1997; Yang, 1999 등)는 입장에서 보면, 문화심리학은 기존의 전통심리학에서 사용해 오던 방법과는 다른 대안적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기존의 문화심리학 연구방법과 더불어 필자들이 새롭게 제안하는 방법들을 동시에 제시해 보기로 한다. 제시의 편의상 문화심리학의 방법을 크게 1)문화적 자극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경험 및 해석을 분석하는 실험적 접근, 2) 문화적 심리현상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는 접근, 3)일상 언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심리의 구성형태와 내용을 분석하는 접근, 4)사회적 삶 과정의 활동분석을 통한 문화심리 생성과정과 내용을 분석하는 접근으로 나누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 접근방법을 논해 보기로 한다.

#### 1) 문화적 자극과 관련된 경험 및 해석을 분석하는 실험적 접근

문화심리학에서는 상황맥락과 마음의 작용을 관심있게 보지만, 그렇다고 실험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자극과 반응을 못 다루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극과 반응의 본질을 규정하는 방식은 실험심리학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문화심리학에서의 자극은 문화 속에 담겨져 절여지고 곱삭은 문화적 자극이다. 이러한 자극은 개인의 문화-일상적 삶 속에서 그 의미와 성격이 이미 부여된 자극이며, 동시에 이러한 자극과 관련된 감정, 신념 및 행위양식을 필요나 당위의 형태로 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심리학에서의 자극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형태로 규정되거나 또는 심리적인 순수 단일 차원의 성격을 띤 자극으로 규정되고 조작된다. 이러한 실험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심리학에서의 자극은 문화적으로, 개인생활사적으로 오염되었고, 동시에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복합 자극이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심리학과 전통심리학이 지향하는 바가 다른데서 비롯된 것이다. 문화심리학에서는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통채로 다루는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반면, 전통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심리적 차원으로 환원하여 단일차원적 자극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심리학에서는 일상적 삶의 상황 속에 위치지워진 상태(contextualized)에서의 자

15) Bruner(1990)는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며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전통적 과학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반대로 인간은 문화적 존재로써 생물학적 구속을 받는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즉 인간행위의 원인이 생물학적 소인에 있다는 시각은 잘못이다. 그 이유는 문화와 문화권에서 의미의 추구가 행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생물학은 원인이 아니라 행위의 구속조건에 불과하다. 차가 움직이는 원인은 엔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운전자가 목적을 갖고 운전대에 썼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극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지향하나, 전통심리학에서는 자극을 상황과 분리(de-contextualized)하여 독립적으로 자극의 기능을 연구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지향성의 차이는 반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화심리학에서 관심을 두는 반응의 성격은 전통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반응과는 차이가 있다. 실험심리학에서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명백하게 그리고 순수 단일차원으로 개념화되고 파악되는 행동을 뜻한다. 그러나 문화심리학에서의 반응은 상황 속에 묻혀진 복잡한 자극과 관련해서 경험되어지는 심리경험적 복합체 즉, 마음경험, 정서-도덕적 판단 및 느낌, 마땅히 해야 할 일, 자극과 관련된 행동 등을 포괄한다. 문화심리학에서는 행동을 반응으로 사용할 때 그 행동의 의미와 성격은 물론, 그 행동에 대한 행동 당사자의 해석과 의도 및 기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그 이유는 행동이 그 자체로 그 의미를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동의 의미는 행동의 당사자가 자극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했고, 어떤 마음이 들어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행동의 밑에 깔린 심리내적 경험을 분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복잡한 심리현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恨의 심리상태가 원망, 증오, 자기비하, 체념의 복합적인 정서와 행위로 나타나듯이, 일반적으로 복잡한 심리현상은 단일한 또는 고정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Ratner, 1997). 따라서 표출된 행동으로부터 심리를 직접 유추하여, 행동이 다르면 심리도 다르다고 보는 대신에, 다양한 행동이 하나의 심리(마음)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므로써, 실험심리학에서 취하는 단일변수적 접근은 문화심리학에서 적합하지 않다.

전통심리학에서 자극과 반응은 독립적인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심리학에서는 자극과 반응을 반드시 분리되고 독립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자극의 성격이 이미 자극에 대한 반응의 주체인 개인의 자극 경험과 자극 구성에 의해 규정되며, 동시에 자극에 대한 반응도 자극 자체라기보다는 삶의 과정 속에서 자극과 관련해서 축적된 경험양식과 반응의 구성양식에 밀접히 관련된다<sup>16)</sup>. 문화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이처럼

자극 속에 경험과 마음이 있고, 동시에 반응 속에서도 자극과 관련된 경험과 마음이 개입된다. 즉, 문화심리학에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자극과 관련된' 반응인 경험과 마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문화심리학적 연구는 문화적 상황 속에 내재된 문화적 자극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경험과 이에 관여되는 문화적 마음을 있는 그대로 '떠내서' 체계화하고, 다시 이로부터 이러한 경험과 마음의 구성과정과 원리를 추출해 내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접근을 취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Tobin 등(Tobin, Wu, & Davidson, 1989)이 행한 미국, 일본, 중국의 아동교육에 대한 문화비교적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국가의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비교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비디오 촬영하여 1차 자료를 구성하고, 이 영상물을 각 영상물에 등장하는 내부자(아동, 교사, 학부모 등)에게 보여주고 이들이 보는 영상물의 내용, 의미를 파악하여 2차 자료로 삼고, 이 영상물을 각 국가의 다른 내부자(다른 유치원의 아동, 교사, 학부모)에게 보여주어 3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같은 세 가지 자료를 해석하므로 해서 연구자들은 특정문화에서 개발된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토착심리적 시각에서 자료를 해석하려 노력하였다.

이 방법은 문화와 심리가 복합적으로 관여되는 실제의 사건 현장에 대한 직접 관찰이나 이를 비디오를 통해 시청하게 한 다음,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과정과 더불어 그 사건에 개입된 사람들의 행동, 감정표현, 말 등에 대한 이유, 해석, 의미, 심리에 대한 설명을 그 사건에 개입된 당사자의 입장에서 관찰자나 시청자에게 말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문화심리적 시각에서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비디오를 피험자들에게 보여주고 이에 대한 당사자 입장에서의 피험자들의 반응을 채취하는 방법은 전통심리학에서의 실험법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차이점은 실험심리학에서의 자극제시와는 달리 상황 속에서 맥락화된 문화적 자극을 사용한다는 점과 피험자들의 반응이 사건 장면의 피험자들의 입장에서 현상학적으로 경험되고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와 생각을 피험자들이 대신해서 말해준다는 점(실험심리학에서는 피

16) 실험심리학에서 채용되는 자극이 지닌 객관성의 오류에 대한 논의는 최상진·한규석(1998)을 참고하기 바람.

협자 자신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파악됨)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실험 방법은 일반인의 문화심리를 생생하게 채취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그 이유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은 구체적인 사건 장면에서 문화적인 경험과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반면, 이들의 머리 속에 자의식된 형태의 문화심리적 경험설명 및 행위설명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곡해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실험적 접근방식은 문화심리적 현상이나 개념에 대한 표상분석(김경자·한규석, 2000; 최상진, 2000) 방식과 더불어 사용할 때 그 문화심리적 현상의 경험적 구성과 의식적 관념이 어떻게 합치하며, 어떻게 소통되며(communication), 어떻게 구현되는 가를 밝히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Tobin 등(1989)의 연구가 지닌 또 하나의 가치는 이들이 각 문화권의 고유한 현상으로서 자료를 보고 근거 이론(Strauss & Corbin, 1998)적 접근을 취했다는 점이다. 문화를 다루는 경우에 흔히 저지르는 오류는 지배적인 문화의 현상과 개념을 차용하여 그 현상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가 저지르는 특징적 오류이기도 하다. 이 같은 특성이 지닌 문제점은 주류문화의 개념과 이론을 통한 현상의 정리가 비주류 문화의 특징을 왜곡하여 파악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오류를 막기 위해서 Tobin 등은 문화간 비교를 위한 틀은 마련하되, 내용적인 측면에서 각 문화에서 나타나는 일련 유사한 특징들마저 공통된 현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각 문화의 문화맥락에서 토착적 의미를 파악하였으며, 이들 토착심리를 문화권 간에 비교하였다.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자료 분석에 의한 이론을 구성하는 절차를 체계화시켜,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는 주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부호화 체계를 만들고 이로부터 개념들을 추출하고, 개념들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이론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구성된 이론은 그 문화의 맥락속에서 살아있는 질을 지니게 되며, 유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에서 구성된 이론과는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차이를 지닌다. 여기서의 문화간 비교는 비교문화적(cross-culture) 차원이 아니라, 문화심리학적 비교(comparative culture) 차원이 된다(최수향, 1997).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지식은 친숙한 자기문

화의 현상들을 생소하게(defamiliarization) 만들므로써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관습과 제도가 지닌 문화적 구속과 상대성을 인식하게 만든다.

## 2) 문화적 심리현상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하는 접근방법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s)은 사람들이 세상 사물을 이해하는(sense-making) 인식틀로서 그 사회내에 공유되어 있어, 성원들간의 소통을 촉진시키며, 집단의 경계를 구분해주는 인지적 지식체계이다(Moscovici, 1984). 실생활에서 실물성 경험으로 체험되는 문화현상에 대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표상이 일관성 있으며, 공유성이 있고, 문화심리 논리적으로 '그러하며 마땅한'(소이연 - 소당연) 의미체계와 설명체계 등이 조직화된 형태를 보인다. 어떤 심리현상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바로 이러한 속성에 얼마나 가깝게 근접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심리현상의 문화적 현저성, 보편성, 실물성, 체험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표상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표상요소들을 총 망라하기 위한 질문이나, 연상자극제시 방법을 통해 사람들의 머리속에 파편적으로 들어있는 문화심리적 경험요소, 인식요소, 감정요소, 동기요소 등을 발화 내지 외현화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 발화방식과 집단적 발화방식을 개별 또는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자극은 언어형태로 제시된 자극보다는 실물이나 장면 형태와 같은 실물 자극일수록 더욱 바람직하다.

예컨대, 노인을 발화자극으로 사용할 때 노인이라는 말보다 노인 얼굴을 직접 보여주거나 비디오로 시청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이러한 노인도 응답자 자신과 직접 접촉 및 삶의 경험이 있으며 동시에 응답자의 삶속에서 의미있는 구체적 인물을 제시할 때 더욱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응답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상진은 뺨에 대한 연구(최상진·유승엽, 1993)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첫 번째는 한이라는 말을 자극으로 제시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자신과 무관한 일반 노인의 얼굴을 한많은 노인의 얼굴이라고 소개하면서 비디오로 보여주고 한에 대해 발화시키는 방법과, 세 번째는 자신의 주변에서

한 많은 사람을 한 사람 골라 그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도록 하고서 그 사람의 얼굴을 주어진 백지 위에 직접 그리도록 한 후, 그 사람의 한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기술하도록 하는 세 가지 방법이었다. 여기서 가장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다양한 많은 반응을 보이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이었다. 이는 문화심리적 현상의 경험자체와 이에 대한 표상구성 및 표상의 인출에서 자신의 경험이 관여된 문화심리적 현상이 가장 우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 3) 일상 언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심리의 구성 형태와 내용을 분석하는 접근방법

Sabini와 Silver(1982)는 질투(envy), 희롱(flirtation), 분노(anger)와 같은 도덕관련 정서에 대한 분석에서 전통적인 조작적 정의에 바탕한 심리적 개념화를 통해 도덕현상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에서 출발했으나, 심리학자의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개념화가 실제의 도덕현실을 부당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도덕의 본질을 탐색시킨다는 점을 깨닫고 일상적 언어 현상 속에서 도덕의 구성과 본질을 밝히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 당시만 해도 이러한 접근은 전통 심리학에서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이단시 해왔으며,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논문이나 이론이 아닌 에세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Harre 등(Edwards & Potter, 1992; Harre, 1994 등)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담화분석(discursive analysis), Bruner(1990) 등에 의해 제안된 언술분석법(narrative analysis) 등은 물론 Wittgenstein(Bloor, 1983)의 언어심리학과 Moscovici(1984)에 의해 제안된 사회표상론적 접근에서는 일상의 언어가 심리의 구성을 반영하며, 아울러 심리적 현실을 만들어 낸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통상 언어현상을 분석할 때, 텍스트만을 가지고 이를 부호화하여 분류한다. 이는 발화내용이 완벽하게 의미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동질표상적(isomorphic representation) 언어관을 반영한다. 그러나 주어진 텍스트에는 나타난 내용 이상의 것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이 방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즉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텍스트는 자신이 지닌 의미의 편린적 표상물이며, 사회인지적 사건에 대한 사

념과 사상의 네트워크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Shweder & Much, 1991). 문화심리학자들은 담화분석을 하면서, 일상대화가 단지 말해지는 것 이상으로 문화적 신념과 지식체계를 담고 있음을 명백히 한다. 이 같은 문화의 코드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에 연구자가 범하는 문제점은 자못 심각하다<sup>17)</sup>. 말과 텍스트 자체는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것을 결코 완벽히 표상하고 있지 못하며, 유추해석을 위한 지표적 의미(indexical meaning)를 지닌다. 예를 들어 선반에 손을 뻗던 사람이 “내 참, 좀더 키가 컸더라면”하고 말했다면, 자기의 키가 작다는 것 외에도, 상대에게 자기를 도와 선반 위의 것을 내려달라는 것, 상대와 자기의 관계 등이 소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적 의미를 파악하는 추론은 간주관성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담화분석의 대상은 발화내용과 함축된 내용을 연결하는 지식체계에 의해 촉발되는 사적 또는 공적인 소통문화가 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한 연구(Pontecorvo & Fasulo, 1999)는 한 이태리 가족이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으며,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대화에 반영된 문화의 다양성, 성원의 관계성, 권력관계, 사회화과정의 문화적 특성을 분석해 내고 있다.

최상진은 한국인의 대표적 문화심리적 개념들(심정, 정, 한, 우리성, 체면, 눈치, 핑계, 의례성, 아줌마, 팔자, 의리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그러한 개념 자체는 물론 그러한 개념이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개념에 내장된 심리적 요소와 경험들을 도출하고 규정해 내고 있다. 심리현상과 관련된 일상 언어는 그 속에 자신의 경험이 농축되어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언어의 기저가 되는 구체적인 실물성 준거(actual reference)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심리학자들은 문화심리를 풍부히 내장하고 있는 일상의 언어와 이의 소통양태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언어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심리를 추출해 낸다.

17)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텍스트만을 분석하는 것이 지니는 문제점에 대하여, Shweder & Much(1991)는 인도인 응답자인 바바지와 <하인츠의 딜레마>에 대하여 면담한 텍스트를 도덕성발달 이론을 제시한 Kohlberg가 코딩했을 때 겪는 문제점을 예로 들어 흥미있게 기술하고 있다.

#### 4) 사회적 활동분석을 통한 문화심리 생성과정과 내용을 분석하는 접근방법

문화심리학의 이론 구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를 하나 꼽자면, 그는 러시아의 L. Vygotsky이다. 그는 인간의 심리가 문화와 문화적 과정을 매개로 하여 구성되어진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도 언어의 매개과정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후계자인 Leontiev(1981)는 언어와 더불어 인간의 실천적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activity)이 심리에 미치는 매개과정을 강조하였으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Ratner(1997)는 활동이 사회제도 및 사회구조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접근을 통틀어 문화생성론적 혹은 활동중심적 문화심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 여기에서는 마음이 역사-문화-사회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생성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마음은 개인이 내부에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문화적 산물,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서 부상되는 것”(Cole & Engeström, 1995)이다. 이들은 Shweder나 Geertz와 같은 인류학자들이 문화를 공유된 의미의 체계로 여기며, 관념적, 상징적, 추상적인 취급을 한다는 비판을 하며, 문화가 사람들의 활동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한다(Ratner, 1997). 활동을 강조하는 Luria, Leontiev 등 러시아 심리학자들은 막시즘의 영향을 받아 가장 중요한 활동이 생산활동이고 생산활동이 그에 걸맞는 지각, 정서, 동기, 무의식의 심리를 배태한다고 본다. Luria(1976)는 우즈베크에서 농민들과 교사들의 색깔지각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농민들은 소동과 돼지똥을 별개의 색깔로 보지만, 교사들은 두 가지를 같은 갈색계통(추상화)으로 본다. 이는 농민들은 색깔을 물체와 결부된 속성으로 여기지만, 교사들은 색이라는 추상적 속성의 범주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문화심리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활동이 그에 부합하는 심리현상을 배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사물을 지각하는 양상과 같은 근본적인 지각현상에서조차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활동이 지닌 영향력을 부각시키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두 번째는, 이 연구가 취한 방법이 지닌 의미이다. Luria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색채지각이라는 현상을 관찰함에 있어서, 종속변수 위주의 관찰에서 벗어나, 실험과제를 일상에서 친숙한 수순끼리의 형태로 제시하며,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임상적 대화”<sup>18)</sup>) 사람들의 인지, 지각과정을 파악하였다. Luria의 발견은 단순한 종속반응이 아니라 과제해결에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Luria, 1976; Ratner, 1997, p.162-3).

이러한 접근은 주로 Luria(1976; Cole & Cole, 1979) 및 Rogoff(1990)에 의해 발달심리학 연구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심리학의 분석대상을 탈맥락화된 개인의 심리적 속성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문화적으로 매개된 활동을 하고 있는 맥락속의 개인으로 전환시키는 관점을 제시한 기여를 했다(Miller & Berry, 1999).

### 종합 논의

Wundt는 문화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릴 수 있다. 그가 인간정신의 온전한 탐구를 위해 제시했던 두 가지 유형의 심리학에서 실험심리학은 지난 세기에 개화되었으나, 다른 유형의 심리학은 인접사회과학으로 넘어갔다. 최근에는 심리학자들의 관심으로 돌아왔으며, 문화심리학이라는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분야는 전통심리학의 한계를 비판하여 왔지만, 이 비판은 잊혀졌던 인간정신의 중요한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부각시키기 위함이지, 기존의 심리학을 대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들은 탐구대상의 성격이 다르고, 인식론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론도 다를 수밖에 없으며, 실험심리학의 정밀-조작성 범주를 적용하여 문화심리학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 분야에의 관심을 촉구했던 선각자로서 문화인류학자인 C. Geertz는 문화심리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하나 우리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연구방법은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사회구성원이 체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18) 여기서 임상적 대화방법이란 마치 임상장면에서 심리치료자들이 환자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유사하게 피험자들의 응답에 대하여, 어떻게 그러한 응답이 나왔는지, 그러한 응답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탐색한다는 의미임(Cole & Cole, 1979, p.63).



데 필요한 발전된 방법론이다. 이점에서 문화심리학은 문화에 대한 과학적 현상학이다(Geertz, 1973, p.364). Geertz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Vygotsky의 뒤를 이은 생성론적 문화심리학과, 문화의 소통과 구성과정에 관심을 보이는 구성론적 문화심리학과, 그리고 <문화와 인지>학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태시켰다. 본고에서는 이들 방법들의 갈래들을 소개하면서, 특히 실험심리학에서 전가의 보도라고 여기는 실험법이 어떻게 문화심리학의 방법으로 전환(transform)될 수 있는지를 비교적 자세히 논하였다.

Wundt의 민족심리학(Völkerpsychologie)에서 중시하는 자료는 신화, 관습, 언어 및 역사적 유물이다. 만약 Wundt가 오늘날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러한 분석의 대상을 비디오나 오디오를 사용해 실험실 안에서 연구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디지털 카메라가 개발되면서 이제는 사회의 재현장과 사건의 실물 이미지를 그대로 실험실 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 문화심리학이 문화적, 심리적 현상에 내재하는 사건과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한 이러한 문화적 사건과 행동을 준실물 형태로 실험실에서 재현하는 일은 말이나 글을 통해 그 현장을 설명하는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최근의 첨단 시청각 장비는 문화적 현상이 벌어지는 다양한 현장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재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한 개인이 장기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그것도 비체계적으로 접하게 되는 다양한 현장을 실험실에서 조직적인 형태로 편집한 현장의 장면을 자극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문화적 체험을 재현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문화심리학 연구에서는 긴박한 대처현실에서 발동되고 작동하는 심리적 경험과 마음의 움직임을 당사자적 입장에서 떼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최상진, 1997; Choi, 1998). 이러한 입장은 곧 Ratner (1997)가 제시한 활동중심적 접근과 맥이 닿아 있다. 다행히 문화심리학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그 문화의 내부인이 될 경우 이러한 긴박한 대처현실 상황에서의 당사자적 자기 체험을 가질 수 있어서 문화심리적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도출해 내는데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그러나, 이에겐 문화적 내부인(insiders)이 자신의 문화심리적 기본 틀에 얽매일 수 있다는 문제점

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문화심리학 연구에서는 문화 내부자적 관찰과 이에 관여되는 연구자 자신의 당사자적 경험분석을 통한 해석 시각을 넘어서는 제 3자적 관찰자로서의 객관적 시각도 동시에 지녀야 한다. 이 점에서 문화심리학자는 주관적 접근과 객관적 접근의 두 가지 렌즈를 자유롭게 바꾸어 쓰듯이, 관점의 전환을 순환적으로 해가며, 현재 무슨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의식을 연구의 과정에서 항상 작동시켜야 한다(Edwards & Potter, 1999; Tobin 등, 1989 참조).

문화심리학 연구에서는 자기 문화가 아닌 다양한 문화와 이러한 타문화에서 이루어진 문화심리적 연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자기문화 사람들의 심리연구에서 의식적 반조(返照)의 배경으로 삼으며, 동시에 이러한 반조를 통해 연구자 자신이 구성한 해석이나 설명방식이 어떤 문화권에 '대해서' 구성되어진 것인가를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어떠한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개념을 의미지우는 다른 관련개념에 '대하는' 형태로 자신의 개념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예를 개인주의에 대응하는 집단주의(Triandis, 1995), 독립적 자기에 대응하는 상호의존적 자기의 이론(Markus & Kitayama, 1991)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 함축되기 쉬운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낫다"라는 문화우월적 상대주의, 혹은 자문화중심주의의 경향을 짚어보아야 한다. 이러한 자문화중심성은 비교문화심리학의 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혹은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Triandis(1995)는 집단주의 - 개인주의 이론에서 역사의 추이는 개인주의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Markus(1999)는 고등교육을 받은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독립적 자기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 비록 이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떠한 쪽의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명백히 하고 있다(각주 11 참조).

문화의 연구에서 문화간의 비교는 목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적인 관심사이다(각주 12 참조). 비교문화심리학에서 문화비교는 문화현상의 단편적 비교에 머물고 있고, 비교의 준거를 제공하는 문화권의 자문화중심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문화심리학적 문화비교는 각 문화 내에서 현상

을 이해하고, 이들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서로 비교하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최수향, 1997). 이러한 비교는 마치 사과와 오렌지의 비교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전자를 비교문화적(cross-cultural)이라 한다면, 후자를 문화심리학적 비교(comparative cultural studies)라고 할 수 있다. 문화심리학적 비교를 통해서 각 문화권에 공통적인 현상과 차이점이 부각되면서 문화 및 문화간의 이해는 깊어질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제15차 국제비교문화심리학회대회(Choi, 2000)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학자들이 동아시아인들의 인간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정(情)에 대하여 각기 독자적으로 문화심리학적 분석을 취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들은 정이라는 문화심리적 현상이 각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심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다. 이 연구들의 비교를 통해 정(情)의 공통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므로써 지금까지 집단주의 문화라고 확립적으로 취급되어 온 세 나라의 문화심리적 차이를 이해하는 구체적 개념이 동아시아 문화의 자생적 개념에서 얻어지며, 이 개념은 나아가 서구 심리학에서의 대응개념과 비교되어 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만 비로서 문화공평한 문화비교가 가능하며 문화현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 고에서는 전통적 과학 이론에 기초한 심리학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기한다기 보다는 새롭게 심리학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문화심리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틀의 모색과 더불어 심리학자들이 보이고 있거나 전개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접근들을 통한 심리학 연구가 수행되어 문화심리학이 전통심리학과 대등한 반열에서 상생적으로 연구주제를 발굴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온전한 심리학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김경자 · 한규석(2000). 심정대화의 특성: 심정표상과 심정대화의 경험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22.

김영정(1996).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김정운 · 한성열(1998).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97-114.

이정모(1997). 심리학 방법론의 개념적 재구성: 서양 방법론의 시사.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0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 155-180.

최상진(1997). 당사자 심리학과 제3자 심리학: 인간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발표논문집, 131-143.

최상진(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최상진 · 김기범(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9-295.

최상진 · 유승엽(1993). 서편제 속의 '한' 심리학. '93 사회과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4-93.

최상진 · 한규석(1998). 심리학에서의 객관성, 보편성 및 사회성의 오류: 문화심리학의 도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73-96.

최수향(1997). 비교문화발달심리학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연구. pp.173-209 서울: 성원사.

최인철(2000). *The conflicted culture or who reads fortune-telling*. submitted. 이 논문의 일부가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의 모임에서 발표되었음. 4월 29일. 서강대학교

한규석(1991). 집단주의 - 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 1-19.

한규석(1997).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연구. 서울: 성원사.

Alasuutari, P.(1995). *Researching culture: Qualitative method and cultural studies*. London: Sage.

Benhabib, S.(1992). *Situating the self*. Cambridge, UK: Polity

Berry, J.(2000). Cross-cultural psychology: A symbiosis of cultural and comparative approaches.

- Invited Speech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 Berry, J., Poortinga, Y., Segall, M., & Dasen, P.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llig, M.(1988). Social representations, objectification and anchoring: A rhetorical analysis. *Social behaviour*, 3, 1-16
- Bloor, D.(1983). *Wittgenstein: A social theory of knowled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runer, J. S.(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ner, J. S.(1990). *Acts of meaning*.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iu, C., Morris, M., Hong, Y., Menon, T.(2000). Motivated cultural cognition: The impact of implicit cultural theories on dispositional attribution varies as a function of need for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247-259.
- Choi, S-C.(2000). Interpersonal emotions of Asians: The Chinese, Korean, and Japanese. A symposium presented at *the 15th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ross-cultural Psychology*, July 16-21, Poltusk, Poland.
- Choi, S-C.(1998). The third-person-psychology and the first-person psychology: Two perspectives on human relation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5, 239-264.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47-63.
- Cole, M.(1990). *Cultural psychology: A once and future disciplin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 M., & Cole, S.(1979). *The making of mind: A personal account of Soviet psychology*(A. R. Luri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 M., & Engeström, Y.(1995). 'Mind, culture, person: Elements in a cultural psychology': Comment. *Human Development*, 38, 19-24.
- Cousins, S. D.(1989). Culture and self-percept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1), 124-131.
- Danziger, K.(1997). *Naming the mind: How psychology found its language*. London: Sage.
- Edwards, D., & Potter, J.(1992). *Discursive psychology*. London: Sage.
- Enriquez, V. G.(1993). Developing a Filipino psychology. In U. Kim & J. Berry, J.(1993), *Indigenous psychologies: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pp.152-169). Newbury park: Sage.
- Farr, R. M.(1983). The impact of Wund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psychology: A critical reappraisal. In G. Eckhart, & L. Sprung(Eds), *Advances in the historiography of psychology*. Berlin: VEB Deut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 Fiske, A.,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oogy*.(4th Ed), vol. 2. 915-981.
- Geertz, C.(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L Basic.
- Gilligan, C.(1984).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Goode, E.(2000). How culture molds habits of thought. *New York Times*, 8, Aug.
- Greenfield, P.(1999). Three approaches to the psychology of culture: Where do they come from? Where can they go? Invited Speech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 Gergen, K. J.(1985). Social constructionist inquiry:

- Context and implications. In K. Gergen & K. Davis.(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pp.3-18. New York: Springer-Verlag.
- Gergen, K. J.(1997). *Realities and relationships: Soundings in social constru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re, R.(1999). The rediscovery of the human mind: The discursive approach.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43-62.
- Harre, R., & Gillett, G.(1994). *The discursive mind*. London: Sage.
- Jahoda, G.(1992). Foreword. In J. W. Berry, Y. H. Poortinga, M. H. Segall, & P. R. Dasen,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pp. x -x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U. & Berry, J.(1993). *Indigenous psychology: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 Newbury Park: Sage.
- Kohlberg, L.(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vol 2*. San Fransisco: Harper & Row.
- Leontiev, A. N.(1981). The problem of activity in psychology. In J. V. Werch(Ed.), *The concept of activity in Soviet psychology*(pp.37-71). NY: Sharpe.
- Lewin, K.(1935). The conflict between Aristotelean and Galileian modes of thought in contemporary psychology. In K. Lewin,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 (pp.1-42). New York: McGraw-Hill.
- Luria, A.(1976). *Cognitive development: Its cultural and social found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kus, H. R.(1999). American ways of being well. A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 Markus, H. R., & Kitayama, S.(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iller, J., & Berry, N.(1999). Culture in conversation: A commentary on Pontecorvo and Fasulo's 'Planning a typical Italian meal' *Culture & Psychology*, 5(4), 459-469.
- Moscovici, S.(1984).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R. Farr & S. Moscovici(Eds), *Social representations*. 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ng, K., & Nisbett, R.(1999). Culture, dialectics, and reasoning about contradiction. *American Psychologist*, 54(9), 741-754.
- Pontecorvo, C., & Fasulo, A.(1999). Planning a typical Italian meal: A family reflection on culture. *Culture & Psychology*, 5(3), 313-335.
- Popper, K. R.(1972). *Objective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otter, J.(1996). *Representing reality: Discourse, rhetoric and social construction*. London: Sage.
- Ratner, C.(1997). *Cultural psychology and qualitative methodology: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NY: Plenum.
- Rhee, E., Uleman, J., Lee, H. K., & Roman, R.(1995). Spontaneous self-descriptions and ethnic identities i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ul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42-152.
- Rogoff, B.(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abini, J., & Silver, M.(1982). *Moralities and everyday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hweder, R. A.(1999). The psychology of practice and the practice of psychology. Invited Speech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 Shweder, R., & Bourne, E.(1982). Does the concept of the person vary cross-culturally? In A. Marsella & G. White(Eds.), *Cultural conceptions of*

- mental health and therapy*. Dordrecht. Holland: Riedel.
- Shweder, R. & Much, N. C.(1991). Determination of meaning: Discourse and moral socialization. In R. Shweder(Ed.), *Thinking through culutre*. pp. 186-240. Harvard University Press.
- Sinha, D.(1997). Indigenizing psychology. In J. W. Berry, Y. H. poortinga & J. Padney(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2nd edition)* (pp.129-170).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 Thomas, W., & Znaniecki, F.(1958). *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 New York: Dover.
- Tobin, J. J., Wu, D. Y. H., & Davidson, D. H.(1989). *Preschool in the three cultures.: Japa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Triandis, H.(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Triandis, H.(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van de Vijver, & Leung, K.(1997). *Methods and data analysis for cross-cultural research*. CA: Sage.
- Vygotsky, L. S.(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ertsch, J.(1985). *Vygotsky and the social formation of min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ikan, U.(1990). *Managing turbulent hearts: A Balinese formula for liv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ang, K-S.(1999). Monocultural and cross-cultural indigenous approaches: The royal road to the development of a balanced global psychology.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 **Methodology in Cultural Psychology**

**Choi, Sang-Chin & Han, Gyuseog**

Chungang University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ultural psychological studies are not to replace the experimental psychology, but to compensate for what has been poorly dealt with in psychology. Because of misconception about the role of cultural psychology(CP), many psychologists are shy away from it. In order to rectify this anomaly, we tried to clarify the role and the research epistemology of CP in relation to other psychological studies. Along with the discussion, we identified three distinctive traditions of research in CP; the Vygotskian socio-cultural approach, the discursive approach, and the culture & cognition approach. We discussed four research methods applicable in CP: experimental approach, social representational approach, discursive approach, and socio-cultural approach. Although experimental approach is legitimate in CP, some transformationary work is necessary. We emphasized that stimuli and response should be contextualized and culturally meaningful and that indigeneous conceptualizations should take place. For the purpose of comparing cultures, we proposed the comparative cultural psychology to replace the cross-cultural psychology to minimize ethnocentrism.